

제 3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5월 14일 개막

주제 리론서, 인기 베스트셀러, 문화창의제품 전시 및 독서 장려 행사, 할인 판매도 진행

20일, 제 3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첫 번째 간담회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장춘농업박람회 1관-5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의 마스코트는 '길소열(吉小阅)'이며 주제 선전 문구는 '동북에서 만나는 독서의 향기, 그 너머의 미래(阅东北悦书香越未来)'이다.



이전 박람회는 '출판물 전시 판매'와 '문화산업 발전'을 중심으로 문화 확산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5개 전시관은 각각 '길서(吉书)', '길운(吉韵)', '길문(吉文)', '길지(吉地)', '길물(吉物)'을 주제로 구성된다.

이 마련되어 주민들이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박람회에서는 보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박람회는 '3위1체'의 투자유치 체계를 구축, 문화 행사에 함께 참여할 세 부문을 초청한다. 첫번째 부문은 출판과 발행 분야로 전국의 출판사와 유통사, 도서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문학, 인문사회, 아동도서 등 여러 분야의 책들이 포함된다. 두번째 부문은 문화창의 분야로 문화창의 개발자, 무형문화유산 전승 기관, 지역 특색 브랜드 등이 포함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자세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우수작품으로 선정되면 공식 채널을 통해 선전된다. 세번째 부문은 산업 분야로 출판, 과학기술, 문화관광을 함께 연결하여 관련 기업, 교육기관,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 여러 주체가 서로 협력하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길림일보

길림성 무용교사 공익훈련 장춘에서



최근, 길림성문화예술계연합회에서 지도하고 길림성무용가협회 주최, 길림성가무극원예술중등직업학교에서 주관한 2026년 제 1기 길림성 무용교사 공익훈련이 장춘시에서 진행되었다. 성내 각지에서 온 70여명의 무용교사들이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공익훈련에 참가했다.

최근, 길림성문화예술계연합회에서 지도하고 길림성무용가협회 주최, 길림성가무극원예술중등직업학교에서 주관한 2026년 제 1기 길림성 무용교사 공익훈련이 장춘시에서 진행되었다. 성내 각지에서 온 70여명의 무용교사들이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공익훈련에 참가했다.

개강식에는 길림성무용가협회 관계자와 여러 원로 무용가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길림성가무극원예술중등직업학교 교장 진향란은 개막사에서 "평생을 무용 예술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길림성 무용 인재 양성과 예술 전승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교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또한 교사와 학생들이 그동안 련마한 기량을 시연, 탄탄한 기본기와 경쾌한 춤사위로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훈련은 북경무용학원 교수 손

룡규가 강의를 맡았다. 그는 수년간 무용 창작과 교육에 힘써왔으며 민족 민간무용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훈련은 리론강의, 실기창작, 결과보고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들은 즉흥 동작 구성, 작품 분석, 창작 실습 등을 통해 창작 기법과 동작 전개, 형태 구성, 창의적 표현 등을 자연스럽게 익히었다. 훈련에서 참가자들은 적극적으로 배우는 한편 서로 활발히 의견을 주고받으며 전문가의 지도 아래 기본기를 다지고 예술적 안목을 넓혔다. 3일간의 알찬 일정은 참가자들의 실재 고민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참가자들은 "이번 훈련에서 얻은 경험을 교육과 창작에 적극 활용해 길림성 무용 예술 발전과 지역 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길림일보

화룡시문화관, 전국북왕대회서 조선족 농악장단 선보여



최근, 하북성 석가장시 정정고성(正定古城)에서 열린 2026 전국북왕대회에서 화룡시문화관이 연변조선족자치주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항목인 조선족 농악장단(农乐长短)을 선보였다. 공연 작품 <붉은 해 변강 비추네>에서 공연팀은 북과 춤을 통해 민족 특색을 예술적으로 표현해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찬사를 받았다.

시했다. 강렬함과 부드러움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리듬은 관객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여기에 화려한 민족복장과 생동감 있는 춤동작은 변강지역의 일상과 연변인민들의 활기찬 기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전국북왕대회는 중국 민간 북문화의 대표적인 행사로 손꼽힌다. 공연장에는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고 춤 역시 경쾌하고 활기찼다. 공연팀은 조선족 농악장단의 전통 리듬을 현대적인 예술 표현과 조화롭게 결합

화룡시는 이번 행사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조선족 농악장단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작품 창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붉은 해 변강 비추네>와 같은 특색 프로그램을 보장하여 다양한 문화교류 행사에 적극 참여할 타산이다. / 글 오건기자 / 사진 화룡시당위 선전부

1인극 열풍, 꾸준한 성장세 유지할 수 있을까?

최근년간, 1인극(独角戏)이 무대예술에서 주목받는 장르로 자리잡았다. 북경의 '국제 1인연극축제'처럼 한명의 배우가 극을 이끄는 이 형식은 이제 업계가 주목하는 초점으로 되었다.

을 낮추는 실용적인 돌파구가 되면서 국공립 극단과 인기 배우들도 잇달아 참여해 시장 규모를 키웠다.

다. 진정한 1인극은 단순한 내면 독백의 라벨이 아닌, 다양한 예술적 장치가 결합되어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 1인극이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기 배우나 축제의 열기에만 기대서는 안된다. 독창적인 소재 발굴을 장려하고 체계적인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여 예술성과 시장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는 1인극이 연극계라는 거대한 지도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일 것이다. / 중국문화보

그러나 이러한 열풍 뒤에는 창작과 인재 양성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1인극들은 카프카, 초바이크, 하노흐 레빈 등과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바탕으로 한 경우가 많다. 거장의 작품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새로운 창작물이 계속 부족하다면 이는 업계의 창작 의욕과 기본 역량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 1인극은 결코 '저비용'의 대명사가

아니다. 화려한 연출이나 상대 배우와의 호흡에 기댈 수 없기에 홀로 무대를 채우는 배우에게는 그만큼 더 높은 집중력과 연기력이 필요하다. 1인극 배우는 단순한 연기자를 넘어 이야기 전개, 신체 표현, 창작 능력까지 겸비해야 하며 때로는 1인 다역을 오가며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예술가여야 한다. 현재 일부 작품은 '무대 위에서 혼자 이야기하는 수준'에 머물러있다. 조명, 무대미술, 음악, 몸짓 등 종합적인 예술적 요소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다 보니 자칫 '독백과 조명'뿐인 전편일률적인 형식에 빠질 위험이 있

▶ 1면에서 또한 함순녀는 문예를 교양으로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하고 우수한 문화 봉사가 더 많은 백성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의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큰 계발을 받았고 앞으로의 문화사업에 대해 더 명확한 방향을 가지게 되었다고 표했다. 보고회 강단에서 무용교실까지 함순녀가 랑회 정신을 전달하는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보고회가 끝난 후 그녀는 곧바로 무용교실로 향했다. 연습복으로 갈아입은 함순녀는 교실의 발레봉 옆에 서서 곳곳한 자세로 정중하고 류창하게 동작들을 시범해보였다. "발레 기초 훈련은 무용의 기초로서 꽃꽂이 몸매와 동작의 규범을 중요시한다. 이는 마치 우리의 문화 전승처럼 근본을 단단히 다져야 할 뿐만 아니라 전통을 지키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업시간에 그녀는 학생들의 자세를 손수 교정해주고 발끝 세우기, 팔 뻗기 등 세밀한 동작을 하나하나 바로 잡아주었다. 동시에 랑회 정신을 알기 쉬운 방식으로 수업에 융합시켰다. "무용 전공 학생으로서 기본기를 갈고닦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생활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연변의 산수인문과 여러 민족의 왕래·교류·융화 이

야기에서 령감을 얻어 무용에 령훈과 온도가 있게 해야 한다."고 함순녀는 말했다. 함순녀는 학생들 사이를 오가며 때로는 몸을 숙여 다리 각도를 교정해주고 때로는 손을 들어 어깨 자세를 조절해주었다. 참을성 있고 세밀한 지도 속에는 무용 전승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는지 문화강국의 씨앗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조용히 뿌리내리게 했다. 전국 랑회 직무 리행 현장에서 랑회 정신 보고회 강단, 다시 무용 교수의 일선 교실까지, 함순녀는 시종 인대대표의 책임감과 문예종사자의 사명감으로 랑회 정신을 기층의 구석구석까지 전달하고 문화 전승과 예술 교수의 실천 속에 융합시켰다. 함순녀는 "나는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을 견지하고 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중국 이야기를 잘 전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현실 소재에 초점을 맞추어 시대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문화를 깊이있게 파고들고 창조성 전향을 추진하여 기골이 있고 도덕이 있으며 온도가 있는 정품을 더 많이 창작할 것이다. 동시에 문예헤민 사업에 참여하고 대중 문예를 번영시키며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매체를 잘 활용하여 우수한 문화가 기층에 심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길림일보

